



(주)경방

000050 | KOSPI | 섬유, 의복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1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본회사 교육실

Executive Summary

▶ 다원시스는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사외이사 후보자 김상익은 삼양그룹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며, 현재 삼양제넥스의 상근감사를 맡고 있는데 삼양제넥스를 지배하고 있는 삼양홀딩스는 경방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방과 삼양그룹은 선대 회장 시기에 친인척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적절히 이사회를 견제하는 등의 제 역할을 다하기에 다소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되어 경방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찬성	일부 반대
2-1	사내이사 김준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2-2	사내이사 김담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2-3	사외이사 김상익 신규선임의 건	찬성	반대
제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4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통신판매업 사업 목적 추가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 이사	김준	63.09.19	2	재선임	(주)경방 대표이사 사장	(주)경방 대표이사 사장	美 Brown大 화학박사
	김담	65.04.07	2	재선임	(주)경방 대표이사 부사장	(주)경방 대표이사 부사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사외 이사	김상익	47.12.01	2	신규선임	(주)삼양제넥스 상근감사	(주)삼양제넥스 상근감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2)	6(2)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억원	10억원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9천만원	9천만원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고 함
- 통신판매업 추가 사유는 주차권 인터넷 판매를 위함이며, 해당 사업 목적의 추가가 기존 경방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찬성의 의견을 권고

※ 경방은 상법 제 449조의 2 및 정관 제 34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가 있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기에 보고안건으로 시행함

Discussion

Proposal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21. 통신판매업 : :	주차권 인터넷 판매를 위해 사업목적 추가

Analysis

▶ 통신판매업 추가

회사가 밝힌 바와 같이 주차권 인터넷 판매를 위해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고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하였다. 해당 사업목적이 정관에 추가가 되더라도 기존 경방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권고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 사장인 김준과 대표이사 부사장인 김담을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새로이 김상익을 선임하고자 함
- 김준 이사와 김담 이사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장기간 경방에 재직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책임 경영과 장기 사업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안
-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자는 경방의 주요주주인 삼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삼양제넥스의 상근감사이면서 삼양그룹에서 장기간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확실하기 어렵고 경방과 삼양그룹이 친인척 관계인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이사회를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 이사	김준	63.09.19	2	재선임	(주)경방 대표이사 사장	(주)경방 대표이사 사장	美 Brown大 화학박사
	김담	65.04.07	2	재선임	(주)경방 대표이사 부사장	(주)경방 대표이사 부사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사외 이사	김상익	47.12.01	2	신규선임	(주)삼양제넥스 상근감사	(주)삼양제넥스 상근감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필요

▶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적 이사회 구성 필요

현재 경방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2인, 그리고 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올해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준 이사와 김담 이사의 재선임을, 그리고 윤재엽 사외이사를 대신해 김상익 사외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김준 이사와 김담 이사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각각 사장과 부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10년 넘게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경영진으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고, 장기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김준 이사와 김담 이사의 재선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하지만 사외이사 김상익은 전체적인 조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외이사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내기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김상익 사외이사는 현재 삼양제넥스의 상근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삼양제넥스의 최대주주는 삼양홀딩스 등이며, 삼양홀딩스는 경방의 지분 11.8%(2014.01.08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 가운데 하나이다. 삼양 그룹과 경방 그룹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경방의 최대주주인 김준과 김담의 부친인 고 김각중 명예회장과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과는 고종사촌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삼양그룹과 경방그룹은 지분도 교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관계를 통해서도 매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자는 1975년 삼양사에 입사에 99년 삼양제넥스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상무로 선임되었으며 2009년까지 삼양 웰푸드의 대표로 재직했으며, 작년 삼양제넥스의 상근감사로 선임되었다.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자는 삼양그룹에 오래 몸 담은 인물임을 고려해 볼 때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자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어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 이전에 사외이사를 맡고 있던 윤재엽 사외이사 역시 삼양데이터시스템 감사를 역임했으며, 삼양홀딩스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운영그룹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현재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강순태 상근감사는 경방의 자회사인 경방유통에서 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즉,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핵심적인 기구로서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방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김상익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경방의 이사 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6인(사외이사 2인 포함)이며, 상정된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 2012년 경방은 10억원의 이사 보수 한도 가운데 약 4.7억원을 집행하였음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과 동일하게 감사 보수 한도액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1인에 대해 0.9억원으로 상정하였으며, 2012년 감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약 0.67억원
-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정된 의안이며, 전년도 한도액과 집행 실적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 의견을 제안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2)	6(2)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억원	10억원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9천만원	9천만원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경방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6 (2)	6 (2)	6 (2)
주총승인금액(천원)	1,000,000	1,000,000	1,00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471,420	347,332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적

경방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감사의 수	1	1	1
주총승인금액(천원)	90,000	90,000	9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67,140	53,558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